

AI가 알아서 절약모드로... 1등급보다 최대 70% 추가 절감

비스포크 신제품 공개

SAMSUNG

‘고효율 에너지 절감’ 57개 선배 소모많은 에어컨 등도 10% 덜 써 비스포크 모든 제품에 ‘와이파이’ 맞춤형 서비스 ‘캄테크’ 확대 고수준 AI 기술로 환경 보호도

“친환경에 대한 진심을 느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만든 파타고니아는 말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2023년형 비스포크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비스포크 홈에 초연결과 친환경성을 더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더 가까운 맞춤형 가전과 솔루션으로 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적인 변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초정밀 가공 기술을 활용한 컴프레



삼성전자가 21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비스포크 라이프(BESPOKE Life)’ 행사를 열고 효율성과 연결성을 높인 비스포크 신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와 디지털 AI 인버터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1등급보다도 최대 30% 가량 높게 만든 ‘고효율 에너지 절감’ 모델 57개 제품을 새로 내놨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 여름철 전기 소모가 많은 에어컨도 1등급보다 10%나 에너지를 덜 쓴다.

고효율 모델이 아니더라도 세탁기와 건조기는 모든 모델이 1등급을 충족한다. 냉장고와 에어컨까지 평균 75%가

1등급, 업계에서는 1등급 제품 비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활용하면 ‘AI 절약모드’로 최대 70%까지 추가 절감 가능하다. 냉장고의 경우 AI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해준다. 그 밖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가전 6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에어컨과 슈드레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비스포크 신제품은 모두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전 모델에 와이파이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알아서 사용자에게 맞춰주는 ‘캄테크’도 확대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측면에서 AI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는 것. 적용 품목도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서 스틱청소기와 오븐 등을 추가하며 15개로 늘렸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280W 성능에 AI 모드로 바닥 상태를 인식해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스틱 청소기 최초 ‘AI+’인증을 획득했다. 로봇 청소기 제트봇 AI에는 ‘우리 아이 마중하기’ 기능을 더해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수준 높은 AI 기술은 환경도 지켜준다. 비스포크 그라데 AI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탑재해 섬유에서 주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60% 가량 줄여준다. 추후 필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 테마 컬러는 세이지 그린이다.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설명.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는 32형 패밀

리 허브와 베버리지 존을 추가하고,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와 슈드레서는 용량을 확대하는 등 내부 디자인도 일부 변경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판매량을 전년보다 50% 확대한다는 목표다. 높은 성능에 친환경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절감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일부 있지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X부부장 한종희 부회장은 “올해는 기존 비스포크 홈에 친환경, 고효율, 초연결성을 추가해 비스포크 라이프 개념을 적용하고 개개인의 삶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비스포크는 친환경 실천에 기여하고, AI 기술로 맞춤형 경험을 확대해 ‘비스포크 라이프를 실현해주는 솔루션’으로 진화를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CCS사업 미래 먹거리로 낙점

미얀마 해상 가스전 개발 경험 등 E&P 분야서 글로벌 역량 발휘 LNG밸류체인 전 단계 연결 유일 탄소중립·온실감축목표 달성 선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탄소 포집·저장)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에너지 부문 산하에 CCS사업화추진반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 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CCS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구상이다.

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되는데 적합한 지층 구조를 찾기 위해 인공지진과 탐사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시한 CCS사업 모형

원개발의 역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상 가스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탐사 개발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가스전 탐사권을 확보하는 등 E&P(석유·가스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밸류체인 전 단계를 연결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부존지역 탐사, 가스 운송, 가스전·터미널 운영 등 CCS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2년 인수한 호주 세넥스 에너지와도 CCS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와 경제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나스, 페트로스, 포스코홀딩스 등과 함께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염대수층과 해상 고갈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그룹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온실감축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준법위, 반도체 사업장 첫 방문·점검

이찬희 위원장 등 위원 전원 참석 준법문화 정착 위해 수시 방문키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반도체 사업장 준법 문화를 직접 확인했다.

준법위는 2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과 안전환경 및 준법경영 담당 임원들도 동석했다.

준법위가 삼성관계사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준법문화 정착을 목표로 수시로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준법위는 반도체 사업 관련 ▲안전/환경 ▲내부거래 ▲ESG 등 준법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기업의 준법경영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준법경영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근무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할 때 의미가 있으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현장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SK C&C, 한국형 챗GPT 초대규모 개발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결합 금융 시스템에 적용해 AI B2B 발굴

SK C&C와 네이버클라우드가 손잡고 한국 산업에 맞는 챗GPT 형태의 초대규모 AI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SK C&C는 21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Hyper-Scale) AI 기반 B2B 사업 확장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SK C&C의 디지털 IT S 노하우와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 결합을 통해 국내 산업 맞춤형 AI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하이퍼클로바X는 고객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와 결합해 사용자 니즈에 맞는 응답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초대규모 AI로 누구나 목적에 최적화된 AI 프로덕트를 만들어 AI 기반의 비즈니스 기회

를 만들 수 있다

양사는 먼저 콜센터 자동화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 등 금융 분야별 맞춤형 초대규모 AI 서비스 모델 발굴에 힘을 모은다.

양사는 금융 산업은 고객상담, 자산 운용, 재무, 투자 등 금융 공통 서비스 외에도 은행의 여신, 수신 등 공공 및 주요 산업에 적용 가능한 업무 대부분을 갖추고 있어 국내 AI 서비스에 대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SK C&C의 데이터 플랫폼인 아큐인사이트 플러스(AccuInsight+), AI 엔진인 아큐타이메이(Accu.TA)와 같이 이미 검증된 AI 데이터 플랫폼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고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를 조합해 하이브리드형의 초대규모 AI B2B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SK디스커버리, 프롭테크 협력체계 구축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야놀자클라우드와 공동개발

이다.

먼저, 양사는 상업·주거용 공간에 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프롭테크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보다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프롭테크 업계의 상생 환경 마련에도 앞장선다. 디지털 기술 지원, 플랫폼 연계, 상생 투자 등으로 중소 서비스 사업자의 성장과 활로 개척을 돕는 액셀러레이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SK디스커버리가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업 야놀자클라우드와 프롭테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중견·중소기업 상생 기반의 프롭테크 시장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데이터 및 개발 역량, 공간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교류하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계획